

영아기 자아인식 능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lf-Awareness of Infants

김 양 은*
Kim, Yang Eun
조 복 희**
Cho, Bok Hee

Abstract

The subjects of this study on self-awareness were sixty-four 8- to 30-month-old infants. They were tested with the “Behaviors Observed in Mirror Conditions” (Lewis & Brooks-Gunn, 1979; translated by Jong Moo Kim , 1989). Analyses were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ANOVA. Most infants responded when they saw their reflection in the mirror, and their self-awareness increased with age. Most infants under 17 months didn't respond before and after rouge was painted on their noses, but by 18- to 23-months, they started to show a response. Most of the infants older than 24 months noticed something unusual and tried to rub the rouge off when they saw their reflection.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hat infants begin to show self-awareness after 18 months of age, and this self-awareness is well developed after 24 months of age.

Key Words : 자아인식(self-awareness), 거울 실험(mirror condition), 자기지향 행동(self-intend behavior)

* 접수 2001년 9월 30일, 채택 2001년 10월 31일

* 경희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아동연구센터 연구원, E-mail : jenni1214@hotmail.com

**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전공 교수

I. 서론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을 해석해 왔다. 자아는 철학자, 사상가, 사회학자, 교육학자 그리고 심리학자 등의 주요 관심사였다. 자아에 대한 생각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라고 볼 수 있다.

정신분석학적 접근에서 자아는 인성을 형성하는 원초아(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의 역동성 속에서 개체가 출생하여 외부와 접촉하면서 발달하고, 자아를 현실을 정확히 지각하며 합리적 사고방식을 하는 이차적 사고과정이라고 보았다(Freud, 1962). 사회심리학적 접근에서 자아는 대상으로서의 자아, 즉 인지되고 경험되는 것으로서의 자아를 뜻한다(Mead, 1970). 이 접근에서 자아개념은 타인의 반응을 인지함으로써 형성된다는 것으로 개인과 사회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상학적 접근에서 자아는 대상이자 동시에 과정이며, 자아개념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즉 경험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환경과 자신에 대한 인지적인 지각을 강조하고 있다(James, 1983).

1980년대 이후에는 객관적인 현상 자체보다도 개인이 그 현상을 어떻게 지각하는가를 중요하게 보는 현상학적 접근이 대두되었는데, 이로 인해 자아에 대하여 관심이 고조되었으며(이은혜, 1995) 특히 개인이 자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논의의 초점이 되었다(박상미, 1999).

자아인식이라는 용어는 인지와 관련된 측면이면서 정서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을 통제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느낌이 생기며, 자신에 대한 느낌은 다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환경탐색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들은 자아개념 발달에 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크며, 그 중에서도 아동을 둘러싼 환경가운데 부모와 또래변인이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사실상 국내외 많은 연구들에서 개인이 성장 발달하면서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적 변인 중 부모와 또래변인은 자아인식 형성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입증되어 왔다(이미정, 1987, 오원정, 1999, 이사라, 박성연, 2001; Baumrind, 1973; Lamborn, Mounts, Steinberg, & Donrbusch, 1991; Steinberg, donrbusch, & Brown, 1992).

자아인식의 발달에 관한 연구는 아동이 언제부터 자신을 인식하며 연령에 따라 자아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다(박상미, 1999). 그러나 자아인식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학령기나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고(신숙재, 1990), 특히 영아기에 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영아의 자아인식에 관한 외국 논문들에서도 그 시기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1세 이하에 이미 자아인식이 이뤄진다고 하는 학자들은, 낯선 사람이나 보호자와 떨어지는 것을 무서워하는 8-12개월에 이미 자아인식이 이뤄진다고 하며 또 다른 학자들은 가까운 사람에게 미소 짓는 3개월을 자아인식의 시기로 규정하기도 한다. 또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좌절감은 1개월에 나타나는데 이는 자아개념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Johnson, 1983).

20개월 전후가 되어야 자아인식이 이뤄진다고 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영아가 처음으로 그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생각해보며 어떤 과제에 대한 잇따른 실패에 불안을 보이는 태도가 24개월 직전에 나타나고

(Kagan, 1981), 이런 성숙한 반응들이 1세 영아에게는 미숙한 형태라라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없음에 주목한다. 2세 직전에 자아 인식이 이뤄진다는 또 다른 증거는 영아에게 장난감을 보여주며 어떤 행동을 한 후 이를 숨겨버리거나 빼앗아버리면 영아는 울음을 터뜨리는데, 이 행동은 미국과 피지의 영아들 모두 15개월에서 17개월에 시작하여 20-27개월에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Gellerman, 1981). 영아가 20개월 이후가 되면 어떤 과업을 달성했을 때 미소를 짓는데, 이런 성취의 미소는 24개월 직전에 급격히 증가한다(Kagan, 1981). 이런 미소는 외부의 행동적인 결과에 대해 아동이 목표를 만들어 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여 그 달성에 대해 미소짓는 것이다. 2세가 된 영아가 어떤 요구 사항이 들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성인에게 행동을 지시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다. 이 반응의 범주의 출현은 영아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Kagan, 1989). 8개월 된 영아가 원하는 물건을 가리키고 징징대는 것이 그걸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나 그런 울음이나 행동이 어른의 행동을 바꾸리라는 의식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다. 즉, 8개월 된 영아가 가르키는 것이나 징징대는 것이 외관상 2세 영아가 퍼즐을 푸는데 도와달라는 것과 비슷할 수 있으나 두 반응은 기본적 능력에 있어 매우 다르다(Kagan, 1998).

주요한 성장 발달이 20개월 이후 나타난다

는 주장은 뇌의 해부학 정보에서 뒷받침된다. 인간 피질의 수상돌기의 뻗어가는 길이와 정도는 2세 이전까지 성인 수준의 규모에 이르지 못한다. 피질 성숙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15-25개월 사이로 나타나며, 처음으로 성숙의 단계와 비슷한 충을 이루는 시기이다. 이 시기가 영아의 자아인식행동을 하는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다. 이렇듯 자아인식 시기가 뇌의 진화, 즉 성숙과 연관된다면 인간의 첫 생의 시기인 영아기를 통해 추후 발달을 예측해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들의 인간 성장의 주요한 자아인식 시기가 외국의 여러 실험에서 나타난 것처럼 20개월 전후가 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30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Mirror Test를 실시하여 루즈없는 조건과 루즈 있는 조건에서 영아의 자아인식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두 조건에서 나타나는 반응의 차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국내 영아들의 자아인식 시기가 외국의 결과와 일치하는지 비교분석하고, 실험을 통해 이를 보다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루즈없는 조건에서 영아기 자아인식 행동의 발달은 어떠한가?
2. 루즈있는 조건에서 영아기 자아인식 행동의 발달은 어떠한가?
3. 루즈없는 조건과 루즈있는 조건의 영아기 자아인식 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 측정도구 및 실험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강원, 울산, 경남에 있는 8개월 이상 30개월 미만의 영아 64명이다. 이 영아들은 종일제 탁아시설이나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없는 정상아로 실험자와 라포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험을 거부하거나 실험에 방해로 받은 영아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Fortaine(1996)의 선행연구에서 영아의 자아인식 행동이 18개월 이전에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24개월 이후에는 대부분의 영아가 자아인식 행동을 나타냄에 근거하여 집단을 17개월 미만, 18-23개월, 24개월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4		
배경변인	내용	빈도(%)
성 별	남아	32(50%)
	여아	32(50%)
월 령	18개월 미만	23(35.9%)
	18-23개월	25(39.1%)
	24개월 이상	16(25.0%)
형제순위	첫째	37(57.8%)
	둘째 이하	27(42.2%)
지 역	서울 경기	27(42.2%)
	지방	37(57.8%)

2. 측정도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는 연구자가 가정을 방문한 경우 부모나 보호자와 면접을

통하였고, 기관을 방문한 경우 기관장의 협조를 받아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영아의 자아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Lewis와 Brooks-Gunn(1979)이 개발한 『Behaviors Observed in the Mirror Conditions』를 김종무(1989)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Gallup과 Amsterdam(1968)이 개발한 자아인식 능력 측정 방법을 한층 발전시킨 것으로 영아에게 거울과 루즈를 사용하여 영아의 코에 루즈를 묻히기 전과 루즈를 묻힌 후의 조건을 제시하고, 영아의 거울에 대한 반응행동(mirror behavior)을 5항목에 대해 평정토록 되어 있는 척도이다. 영아의 자아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데 이용되는 5가지 평정 항목

<표 2> 5가지 자아 인식의 평정항목

5가지 자아 인식의 평정 항목	
얼굴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소 · 집중 · 찡그림
목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웃음 · 재잘거림 · 훌쩍임, 흐느낌 · 울음
거울 지향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울을 가리킴 · 거울을 만짐 ·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을 · 만짐 거울에 입을 맞춘 · 거울을 침
모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율동적인 신체 운동(손뼉치기, 땀, 손 흔들기) · 얼굴 움직임(표정짓기, 인상쓰기, 혀 내밀기) · 수줍어 하는 행동
자기 지향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 가리킴(얼굴, 몸 만지기, 입에 손가락 넣기) · 코 가리킴(코만지기, 코의 루즈 지우기) · 자기를 가리킴 · 언어로 코, 루즈 또는 자기 말하기

은 <표 2>와 같다.

채점은 루즈 있는 조건과 루즈 없는 조건에서 각각 10초 단위로 90초 동안 위와 같은 자아인식 반응이 나타난 빈도를 세어 1회에 1점씩 점수화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인식이 더 많이 발달한 것이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Lewis와 Brooks-Gunn (1979)의 연구에서는 관찰자간 일치도가 .85였고, Lewis와 Brooks-Gunn, 그리고 Jaskir (1985)의 연구에서는 $r=.98-1.00$ 으로 나타났다(김종무, 1989). 또 국내의 김종무(1989)의 연구에서는 .87의 신뢰도 계수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의 자아인식 평정의 관찰자간 신뢰도는 .93이었다.

3. 실험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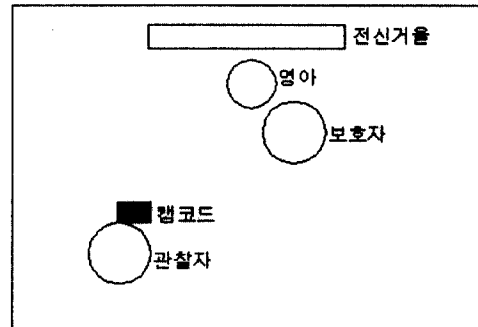
1) 예비 조사

실험에 앞서 36개월 미만의 영아 5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영아의 월령은 6개월, 15개월, 18개월, 26개월, 32개월 된 남아 3명과 여아 2명으로 서울 지역에 거주하며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영아로 구성되었다. 예비조사 결과 8개월 미만의 영아는 루즈가 없는 조건과 루즈가 있는 조건 각 90초 동안 보호자와 함께 거울을 보는 것을 참지 못하고 칭얼거리거나 거울을 보지 않으려 하며 울음을 터뜨리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 실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30개월 이상의 영아는 루즈를 문힌 후의 자신의 코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실험집단에서 제외시켰다. 또 예비조사를 통하여 영아가 루즈 색깔의 선명도에 따라 거울속 자신의 코 색깔을 확인하는데 차이를 보임이 확인되어, 채도와 명도가 선명한 빨간 색으로 조정하여 코

의 색이 뚜렷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아의 신체 일부만 보이는 거울은 다른 신체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어 거울의 크기를 영아의 전신이 보이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2) 본 조사

영아는 보호자와 함께 영아의 전신이 보이는 거울 앞에 위치한다. 보호자는 영아와 90초 동안 최소 3회 이상 거울을 본다. 그후, 보호자는 영아가 알아채지 못하게 주의하며 영아의 코에 빨간 색 루즈를 문힌다. 같은 방법으로 90초 동안 최소 3회 이상 거울을 보게 한다. 관찰자는 캠코드로 이 과정을 촬영한 후 평정하며, 실험소요시간은 10-15분이다.



<그림 1> 실험환경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1 프로그램과 MS EXCEL 20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과 영아의 자아인식 능력의 일반적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 루즈 없는 조건과 루즈 있는 조건에서 자아인식 능력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ANOVA)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각 연령별 분산의 동일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동변

량 분석(Homogeneity-of-variance test)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본 장에서는 루즈가 없는 조건과 루즈가 있는 조건에서 영아가 자아인식 행동을 나타내는 출현율과 빈도를 살펴보고, 자아인식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1. 루즈 없는 조건에서 영아의 자아인식 행동

루즈가 없는 조건에서 영아가 거울을 보고 자아인식 행동이 나타나는 출현율과 90초 동안의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얼굴표정

17개월 미만, 18-23개월, 24개월 이상 영아가 거울을 보고 미소를 짓는 영아의 출현율은 74%(17명), 60%(15명), 38%(6명)이었고, 그 빈도는 2.04번, 1.76번, 1.19번이었다. 또 거울에 집중하는 영아는 월령별로 각각 91%(21명), 96%(24명), 81%(13명) 이었고, 그 빈도는 3.52번, 3.68번, 3.81번으로 나타났다. 거울을 보고 찡그리는 행동을 한 영아는 17개월 미만이 30%(7명), 18-23개월 영아가 40%(10명), 24개월 이상이 13%(2명)로 나타났고, 그 빈도는 각각 .74번, .67번, .25번으로 나타났다.

2) 목소리

17개월 미만, 18-23개월, 24개월 이상 영아가 거울을 보고 웃는 영아의 출현율은 9%(2명), 16%(4명), 19%(3명)이었고, 그 빈도는 .09번, .40번, .25번 이었다. 또 거울을 보고 재잘

거리는 행동을 한 영아는 월령별로 각각 35%(8명), 48%(12명), 50%(8명) 이었고, 그 빈도는 .91번, 1.12번, 1.00번으로 나타났다. 훌쩍이는 행동은 월령별로 각각 22%(5명), 28%(7명), 6%(1명)이었고, 그 빈도는 .35번, .56번, .06번으로 나타났다. 거울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는 영아는 17개월 미만이 9%(2명), 18-23개월 영아가 4%(1명), 24개월 이상이 0%(0명)로 나타났고 그 빈도는 각각 .09번, .04번, 0번으로 나타났다.

3) 거울지향 행동

17개월 미만, 18-23개월, 24개월 이상 영아가 거울을 가리키는 행동을 하는 영아의 출현율은 22%(5명), 28%(7명), 19%(3명)이었고, 그 빈도는 .30번, .40번, .38번 이었다. 또 거울을 만지는 행동을 한 영아는 월령별로 각각 48%(11명), 40%(10명), 31%(5명) 이었고, 그 빈도는 1.39번, 1.08번, .63번으로 나타났다. 거울속 자기를 만지는 행동은 월령별로 각각 13%(3명), 36%(9명), 25%(4명)이었고, 그 빈도는 .13번, .68번, .25번으로 나타났다. 거울에 입을 맞추는 영아는 17개월 미만이 9%(2명), 18-23개월 영아가 8%(2명), 24개월 이상이 0%(0명)로 나타났고 그 빈도는 각각 .13번, .08번, 0번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7개월 미만의 4%(1명), 18-23개월 영아의 24%(6명), 24개월 이상 13%(2명)의 영아가 거울을 치는 행동을 하였고, 그 빈도는 각각 .09번, .28번, .19번으로 나

〈표 3〉 No Rouge 상태의 자아인식 행동 출현율(%) 및 90초 동안에 나타난 빈도

		얼굴표정				목소리				거울지향				모방				자가지향행동							
		미소	집중	경그림	계*	웃음	재잘 거림	흘림 임	울음	계*	거울 가리킴	거울 만짐	거울 속 자기 만짐	거울에 입맞춤	거울 침	계*	울동적 인 신체 움직임	얼굴 움직임	수줍어 하는 행동	계*	신체 가리킴	코 가리킴	자기를 가리킴	언어로 코 루즈, 자기 말하기	계*
17개월 미만 (N=23)	출현율 (%)	17 (74)	21 (91)	7 (30)	23 (100)	2 (9)	8 (35)	5 (22)	2 (9)	13 (56.6)	5 (22)	11 (48)	3 (13)	2 (9)	1 (4)	13 (56.6)	11 (48)	11 (48)	7 (30)	20 (87)	4 (17)	0 (0)	3 (13)	0 (0)	6 (26.1)
	빈도 (90초)	2.04	3.52	.74	6.30	.09	.91	.35	.09	1.43	.30	1.39	.13	.13	.09	2.04	1.09	.96	.43	2.48	.22	0	.17	.00	.39
18-23 개월 (N=25)	출현율 (%)	15 (60)	24 (96)	10 (40)	25 (100)	4 (16)	12 (48)	7 (28)	1 (4)	16 (64)	7 (28)	10 (40)	9 (36)	2 (8)	6 (24)	18 (72)	13 (52)	10 (40)	16 (64)	24 (96)	6 (24)	0 (0)	2 (8)	1 (4)	7 (28)
	빈도 (90초)	1.76	3.68	.67	6.08	.40	1.12	.56	.04	2.12	.40	1.08	.68	.08	.28	2.52	.92	.60	1.56	3.08	.44	0	.08	.04	.56
24개월 이상 (N=16)	출현율 (%)	6 (38)	13 (81)	2 (13)	16 (100)	3 (19)	8 (50)	1 (6)	0 (0)	9 (56.3)	3 (19)	5 (31)	4 (25)	0 (0)	2 (13)	8 (50)	7 (44)	8 (50)	14 (88)	16 (100)	4 (25)	0 (0)	1 (6)	0 (0)	5 (31.3)
	빈도 (90초)	1.19	3.81	.25	5.25	.25	1.00	.06	0	1.31	.38	.63	.25	0	.19	1.44	.81	.56	2.19	3.56	.31	0	.06	0	.38

* No Rouge 상태에서 자아인식 행동(얼굴표정, 목소리, 거울지향 행동, 모방, 자가지향 행동)을 한 전체 아동수(%)와 90초 동안 나타난 빈도수

〈표 4〉 Rouge 상태의 자아인식 행동 출현율(%) 및 90초 동안에 나타난 빈도

		얼굴표정				목소리				거울지향				모방				자가지향행동							
		미소	집중	경그림	계*	웃음	재잘 거림	흘림 임	울음	계*	거울 가리킴	거울 만짐	거울 속 자기 만짐	거울에 입맞춤	거울 침	계*	울동적 인 신체 움직임	얼굴 움직임	수줍어 하는 행동	계*	신체 가리킴	코 가리킴	자기를 가리킴	언어로 코 루즈, 자기 말하기	계*
17개월 미만 (N=23)	출현율 (%)	15 (65)	5 (22)	5 (22)	23 (100)	5 (22)	11 (48)	2 (9)	1 (4)	16 (69.6)	7 (30)	12 (52)	6 (26)	2 (9)	5 (22)	16 (69.6)	10 (43)	13 (57)	5 (22)	19 (82.6)	6 (26)	6 (26)	2 (9)	1 (4)	6 (26.1)
	빈도 (90초)	1.70	3.65	.39	5.74	.43	1.13	.30	.09	1.96	.39	1.17	.39	.13	.26	2.35	1.22	.96	.22	2.39	.26	.06	.17	1.43	.39
18-23 개월 (N=25)	출현율 (%)	12 (48)	10 (40)	10 (40)	25 (100)	3 (12)	12 (48)	4 (16)	2 (8)	15 (60)	4 (16)	8 (32)	8 (32)	2 (8)	3 (12)	14 (56)	5 (20)	13 (52)	4 (16)	18 (72)	14 (56)	18 (72)	6 (24)	8 (32)	7 (28)
	빈도 (90초)	.80	4.36	.80	5.96	.16	.88	.36	.16	1.56	.16	.64	.44	.08	.24	1.56	.28	.88	.24	1.40	.92	.08	.28	2.12	.56
24개월 이상 (N=16)	출현율 (%)	4 (25)	10 (63)	10 (63)	16 (100)	1 (6)	5 (31)	4 (25)	2 (13)	10 (62.5)	1 (6)	3 (19)	2 (13)	0 (0)	1 (6)	6 (37.5)	2 (13)	6 (38)	5 (31)	8 (50)	9 (56)	14 (88)	5 (31)	7 (44)	5 (31.3)
	빈도 (90초)	.38	3.19	1.00	4.56	.09	.63	.81	.88	2.50	.06	.38	.19	0	.06	.69	.31	.63	.38	1.31	.93	.17	.31	2.31	.38

* Rouge 상태에서 자아인식 행동(얼굴표정, 목소리, 거울지향 행동, 모방, 자가지향 행동)을 한 전체 아동수(%)와 90초 동안 나타난 빈도수

타났다.

4) 모방

17개월 미만, 18-23개월, 24개월 이상 영아가 거울을 보고 울동적인 신체움직임을 나타내는 영아의 출현율은 48%(11명), 52%(13명), 44%(7명)이었고, 그 빈도는 1.09번, .92번, .81번 이었다. 또 거울을 보고 얼굴을 움직이는 영아는 월령별로 각각 48%(11명), 40%(10명), 50%(8명)있고, 그 빈도는 .96번, .60번, .56번으로 나타났다. 거울을 보고 수줍어하는 행동을 한 영아는 17개월 미만이 30%(7명), 18-23개월 영아가 64%(16명), 24개월 이상이 88%(14명)로 나타났고, 그 빈도는 각각 .43번, 1.56번, 2.19번으로 나타났다.

5) 자기지향 행동

17개월 미만, 18-23개월, 24개월 이상 영아가 거울을 보고 신체를 가리키는 영아의 출현율은 17%(4명), 16%(4명), 25%(4명)이었고, 그 빈도는 .22번, .44번, .31번이었다. 또 모든 월령의 영아들이 거울을 보고 자신의 코를 가리키는 행동은 보이지 않았고, 자기를 가리키는 행동은 월령별로 13(3명), 8%(2명), 6%(1명)이었고, 그 빈도는 .17번, .08번, .06번으로 나타났다. 거울을 보고 언어로 코, 루즈 또는 자기자신을 말한 영아는 18-23개월 영아 중 4%(1명)만이 이러한 행동을 보였으며 그 빈도는 .04번으로 나타났다.

2. 루즈 있는 조건에서 영아의 자아인식 행동

루즈가 있는 조건에서 영아가 거울을 보고 자아인식 행동이 나타나는 출현율과 90초 동안의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얼굴표정

17개월 미만, 18-23개월, 24개월 이상 영아가 거울을 보고 미소를 짓는 영아의 출현율은 65%(15명), 48%(12명), 25%(4명)이었고, 그 빈도는 1.70번, .80번, .38번이었다. 또 거울에 집중하는 영아는 월령별로 각각 22%(5명), 40%(10명), 63%(10명)있고, 그 빈도는 3.65번, 4.36번, 3.19번으로 나타났다. 거울을 보고 찡그리는 행동을 한 영아는 17개월 미만이 22%(5명), 18-23개월 영아가 40%(10명), 24개월 이상이 63%(10명)로 나타났고, 그 빈도는 각각 .39번, .80번, 1.00번으로 나타났다.

2) 목소리

17개월 미만, 18-23개월, 24개월 이상 영아가 거울을 보고 웃는 영아의 출현율은 22%(5명), 12%(3명), 6%(1명)이었고, 그 빈도는 .43번, .16번, .09번이었다. 또 거울을 보고 재잘거리는 행동을 한 영아는 월령별로 각각 48%(11명), 48%(12명), 31%(5명)있고, 그 빈도는 1.13번, .88번, .63번으로 나타났다. 흘쩍이는 행동은 월령별로 각각 9%(5명), 16%(4명), 25%(4명)이었고, 그 빈도는 .30번, .36번, .81번으로 나타났다. 거울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는 영아는 17개월 미만이 4%(1명), 18-23개월 영아가 8%(2명), 24개월 이상이 13%(2명)으로 나타났고, 그 빈도는 각각 .09번, .16번, .88번으로 나타났다.

3) 거울지향 행동

17개월 미만, 18-23개월, 24개월 이상 영아가 거울을 가리키는 행동을 하는 영아의 출현율은 30%(7명), 16%(4명), 6%(1명)이었고, 그 빈도는 .39번, .16번, .06번이었다. 또 거울을 만지는 행동을 한 영아는 월령별로 각각 52%

(12명), 32%(8명), 19%(3명)이고, 그 빈도는 1.17번, .64번, .38번으로 나타났다. 거울 속 자기를 만지는 행동은 월령별로 각각 26%(6명), 32%(8명), 13%(2명) 이었고, 그 빈도는 .39번, .44번, .19번으로 나타났다. 거울에 입을 맞추는 영아는 17개월 미만인 9%(2명), 18-23개월 영아가 8%(2명), 24개월 이상은 없었으며 그 빈도는 각각 .13번, .08번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7개월 미만의 22%(5명), 18-23개월 영아의 12%(3명), 24개월 이상 6%(1명)의 영아가 거울을 치는 행동을 하였고, 그 빈도는 각각 .26, .24, .06번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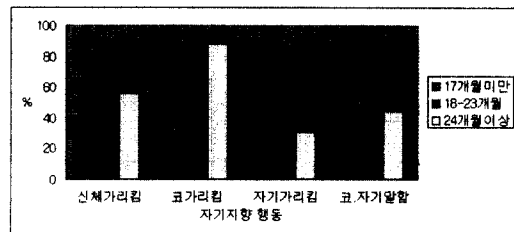
4) 모방

17개월 미만, 18-23개월, 24개월 이상 영아가 거울을 보고 울동적인 신체움직임을 나타내는 영아의 출현율은 43%(10명), 20%(5명), 13%(2명)이었고, 그 빈도는 1.22번, .28번, .31번 이었다. 또 거울을 보고 얼굴을 움직이는 영아는 월령별로 각각 57%(13명), 52%(13명), 38%(6명)이었고, 그 빈도는 .96번, .88번, .63번으로 나타났다. 거울을 보고 수줍어하는 행동을 한 영아는 17개월 미만이 22%(5명), 18-23개월 영아가 16%(4명), 24개월 이상이 31%(5명)으로 나타났고, 그 빈도는 각각 .22번, .24번, .38번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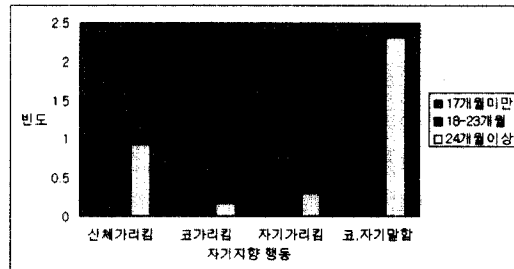
5) 자가지향 행동

17개월 미만, 18-23개월, 24개월 이상 영아가 거울을 보고 신체를 가리키는 영아의 출현율은 26%(6명), 56%(14명), 56%(9명)이었고, 그 빈도는 .26번, .92번, .93번이었다. 또 월령별로 거울을 보고 자신의 코를 가리키는 행동을 보인 영아는 26%(6명), 72%(18명), 88%(14명) 이었고, 그 빈도는 각각 .06번, .08번, .17번

이었다. 자기를 가리키는 행동은 월령별로 9%(2명), 24%(6명), 31%(5명) 이었고, 그 빈도는 .17번, .28번, .31번으로 나타났다. 거울을 보고 17개월 미만 영아의 4%(1명), 18-23개월 영아 32%(8명), 24개월 이상 영아 44%(7명)이 언어로 코, 루즈 또는 자기자신을 말하였고 그 각각의 빈도는 1.43번, 2.12번, 2.31번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루즈 있는 조건에서 영아의 월령에 따른 자가지향 행동 출현율



<그림 3> 루즈 있는 조건에서 영아의 월령에 따른 자가지향 행동 빈도

3. 루즈 없는 조건과 루즈 있는 조건의 영아의 자아인식 행동

루즈 없는 조건과 루즈 있는 조건의 영아에서 영아의 자아인식 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루즈 없는 조건과 루즈 있는 조건에서 월령에 따라 영아가 거울을 보고 미소를 짓거나 집

〈표 5〉 루즈 없는 조건과 루즈 있는 조건의 자아인식 행동

		얼굴표정		목소리		거울지향		모방		자가지향행동	
		No rouge	Rouge	No rouge	Rouge	No rouge	Rouge	No rouge	Rouge	No rouge	Rouge
17개월 미만 (N=23)	출현율 (%)	23 (100)	23 (100)	13 (56.6)	16 (69.6)	13 (56.6)	16 (69.6)	20 (87)	19 (82.6)	6 (26.1)	7 (30.4)
	빈도	6.30	5.74	1.43	1.96	2.04	2.35	2.48	2.39	.39	1.13
18-23개월 (N=25)	출현율 (%)	25 (100)	25 (100)	16 (64)	15 (60)	18 (72)	14 (56)	24 (96)	18 (72)	7 (28)	21 (84)
	빈도	6.08	5.96	2.12	1.56	2.52	1.56	3.08	1.40	.56	3.96
24개월 이상 (N=16)	출현율 (%)	16 (100)	16 (100)	9 (56.3)	10 (62.5)	8 (50)	6 (37.5)	16 (100)	8 (50)	5 (31.3)	15 (93.8)
	빈도	5.25	4.56	1.31	2.50	1.44	.69	3.56	1.31	.38	4.44
F		1.46	3.06	1.20	1.03	.88	3.79	1.44	2.27	2.24	1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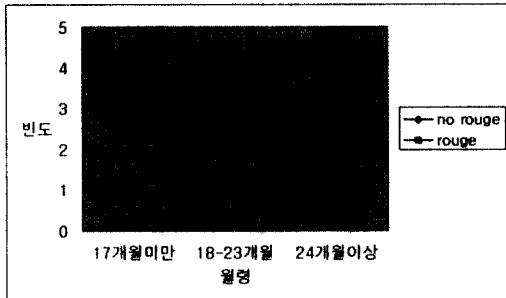
*** p < .001

중, 쩡그리는 등의 얼굴표정 나타내는 출현율과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월령의 영아들이 루즈없는 조건과 있는 조건에서 얼굴표정의 변화를 보였다. 또, 17개월 미만, 18-23개월, 24개월 이상의 영아들은 각각 루즈 없는 조건에서 6.30번, 6.08번, 5.25번의 행동을 나타내었고, 루즈 있는 조건에서는 5.74번, 5.96번, 4.56번을 나타내어 두 조건에서 얼굴표정의 빈도는 월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루즈 없는 조건에서 월령에 따라 영아가 거울을 보고 웃거나 재잘거림, 훌쩍임, 울음을 터뜨리는 등의 목소리를 내는 출현율은 17개월 미만, 18-23개월, 24개월 이상의 영아들은 56.6% (13명), 64% (16명), 56.3% (9명)이었고 그 빈도수는 1.43번, 2.12번, 1.31번을 나타내었다. 루즈 있는 조건에서는 영아들은 월령별로 69.6% (16명), 60% (15명), 62.5% (10명)가 목소리를 내었으며 그 빈도는 각각 1.96번, 1.56번, 2.50번을 나타내어 월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루즈 없는 조건과 루즈 있는 조건에서 월령에 따라 영아가 거울을 가리키거나 거울 만짐, 거울속 자기를 만지거나 거울에 입맞춤, 거울을 치는 등의 거울지향 행동을 하는 출현율과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개월 미만, 18-23개월, 24개월 이상의 영아들은 각각 루즈 없는 조건에서 56.6% (13명), 72% (18명), 50% (8명)의 출현율을 보였고 그 빈도는 18개월 미만 영아가 2.04번, 18-23개월 영아가 2.52번, 24개월 이상은 1.44번의 행동을 나타내었다. 루즈 있는 조건에서는 17개월 미만 영아의 69.6% (16명), 18-23개월 영아 56% (14명), 24개월 이상 영아의 37.5% (6명)가 거울지향 행동을 하였고, 그 빈도는 각각 2.35번, 1.56번, .69번으로 월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루즈 없는 조건과 루즈 있는 조건에서 월령에 따라 영아가 울동적으로 신체를 움직이거나 얼굴 움직임, 수줍어하는 등의 모방 행동을 하는 출현율과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개월 미만, 18-23개월, 24개월 이상의 영아들



<그림4> 루즈 없는 조건과 루즈 있는 조건의 자기 지향 행동 차

은 각각 루즈 없는 조건에서 87%(20명), 96%(24명), 100%(16명)이 모방행동을 하였고 그 빈도는 각각 2.48번, 3.08번, 3.56번이었다. 루즈 있는 조건에서는 17개월 미만 영아의 82.6%(19명), 18-23개월 영아 72%(18명), 24개월 이

상 영아의 50%(8명)가 모방 행동을 하였고, 그 빈도는 각각 2.39번, 1.40번, 1.31번을 나타내어 월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루즈 없는 조건과 루즈 있는 조건에서 월령에 따라 영아가 신체 또는 코, 자기자신을 가리키거나 이를 언어화하는 등의 거울 지향 행동을 하는 빈도를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17개월 미만, 18-23개월, 24개월 이상의 영아들은 각각 루즈 없는 조건에서 .39번, .56번, .38번의 행동을 나타내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루즈 있는 조건에서 17개월 미만, 18-23개월, 24개월 이상의 영아들은 각각 1.13번, 3.96번, 4.44번의 행동을 나타내어 월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기지향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30개월 미만 영아의 자아인식 능력에 관한 실험이다. 본 연구에서는 루즈 없는 조건과 루즈 있는 조건에서 영아의 월령에 따라 자아인식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출현율과 빈도에 관해서 알아보고, 자아인식 행동의 차를 살펴보았다.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자아인식 능력을 Mirror test를 통해 루즈 없는 조건과 루즈 있는 조건에서 영아가 거울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자아인식 시기와 행동특성에 관해 알아보았다.

루즈 없는 조건에서 영아의 자아인식 행동은 얼굴표정, 목소리, 거울지향 행동, 모방, 자

기 지향 행동에서 일정한 패턴이나 월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루즈 있는 조건에서도 영아는 얼굴표정, 목소리, 거울지향 행동, 모방 행동에서 월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영아의 코에 루즈를 묻힌 후 자기지향 행동은 17개월 미만의 영아 30%, 18-23개월 영아 84%, 24개월 이상 영아 93.8%가 나타내었고 그 빈도수 또한 월령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영아의 자아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자아인식 행동은 얼굴표정, 목소리, 거울지향 행동, 모방에서는 루즈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에서 월령에 따른 발달 변화를 알 수 없었고, 자기 지향 행동만이 루즈 있는 조건에서 월령이

높아짐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자기지향 행동은 영아가 거울 속에 비춰지는 일상적이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대한 관심에서 거울 속에 있는 자기자신에게로 그 관심을 옮겨오에 따른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영아의 자아인식 능력은 자신이나 자신의 신체를 가리키거나 이를 언어로 표현하는 자기지향 행동이 그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 결과 영아의 자기지향 행동은 17개월 미만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대부분의 24개월 이상의 영아는 자기지향 행동을 보였다. 거울에 비쳐진 자기의 얼굴에 나타난 '일상적이지 않은 것'을 자기의 본래의 얼굴과 연결시킬 수 있을 때, 영유아는 비로소 코 위에 있는 점을 만질 수 있다. 이 사실은 영아가 '정상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생겼음을 알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몸의 부위를 통합하여 자기를 시각적으로 머리 속에서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 따라서 자기지향 행동이 영아가 거울을 보고 자신의 코가 일상적이지 않음을 인식하는 것으로 그 빈도가 18개월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영아가 자아인식을 하는 일반적 시기가 18개월 이후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김종무(1989)의 연구에서 영아를 10-12개월, 13-15개월, 16-18개월로 나누어 월령 증가에 따른 자아인식의 발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산출된 자아인식행동 점수를 변량분석한 결과 영아의 자아인식의 모든 하위 요인 중에서 월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즉, 생후 10-18개월 사이에 있는 영아의 자아인식의 발달 수준은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연관성을 가진다.

Amsterdam(1968) 3-34개월 된 88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머니들에게 몰래 그들의 코

위에 붉은 점을 찍게 하고, 그들이 거울 앞에 섰을 때의 반응을 관찰하였다. 18-20개월 된 영아들 중 40%, 21-24개월 된 영아들의 67%가 코 위에 있는 점을 만졌다.

Lewis와 Brooks-Gunn(1979)는 16명의 영아들을 각각 9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21개월, 24개월의 6연령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한 결과 모든 연령에서, 영아의 대부분은 거울에서 그들의 이미지에 미소지었다. 많은 영아들이 그 거울을 지적하거나 몇몇의 영아들은 그것을 만지기 위해 손을 뻗었다. 처음에 루즈를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소수의 영아들은 그들의 자신의 코를 만지려 하였고 많은 영아들은 그들 자신의 몸을 전혀 만지려 하지 않았다. 루즈를 묻질렀을 때, 그 효과는 영아의 연령에 따라 현저히 다르게 나타난다. 거울에서 일상적이지 않게 빨간 코가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개월, 12개월 된 영아는 결코 그들 자신의 코를 만지지 않았고, 15개월(19%), 18개월(25%) 된 영아 중 소수와 대부분의 21개월(70%), 24개월(73%) 된 영아들은 그들 자신의 코를 만졌다.

본 연구결과 약18개월을 넘긴 영아들이 거울에서 비친 그들 자신에 관해 호감을 가지고, 이는 영아 자신에 대한 하나의 표현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한 Brooks-Gunn(1979)의 실험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영아의 자아인식 시작시기를 18개월로 보고, 21-27개월을 자아인식 능력의 일반화시기로 정립한 Amsterdam(1968)의 연구와도 유사성을 보인다.

또 Fortaine(1996)의 Mirror test에서 코 위에 점을 찍었을 때 반응하는 시기는 15개월부터지만 15-18개월의 영아들이 반응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21-24개월된 대다수 영아들이 점을 만지고(70%), 24-30개월경에는 모든 영아들

이 일반적으로 이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연구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2.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연구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8-30개월 미만 영아를 월령 별 세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함에 있어 각 집단 영아의 수를 동일하게 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각 월령의 집단에 동일한 수의 영아를 표집하여 집단간 분석에 있어 통계적인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가정과 보육기관에서 연구자의 캠코드 촬영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각 가정과 보육기관의 물리적 환경 등의 차이가 실험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보다

신뢰로운 연구를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실험실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Mirror Test에서 루즈 없는 조건과 루즈 있는 조건의 상황을 만들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루즈 전·후에 약간의 시간차를 두었고, 보호자가 손가락에 루즈를 묻히고 있다가 영아가 인식하지 못하게 코에 찍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월령이 높은 일부 영아들은 보호자가 자신의 코를 만지는 순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좀 더 엄격하게 통제하여 영아가 자신의 코에 루즈를 묻히는 과정을 전혀 알 수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30개월 미만 영아기 자아인식 능력에 관한 연구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함으로써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이론적으로 고찰되었던 영아의 자아인식 시작 시기와 반응에 관해서 실험을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후속연구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종무(1989). 영아의 애착, 자아인식 및 사물영속성 보존능력과 가정환경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상미(1999).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자아지각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인섭(1989).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서울: 양서원.
- 신숙재(1990).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원정(1999). 친구관계의 질 및 친구관계망과 아동의 자아지각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정(1987). 아버지의 자기 존중감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사라·박성연(2001). 부모의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아동학회지, 22(4), 17-32.
- 이은혜(1995). 아동발달의 평가와 측정. 서울: 교문사.
- Amsterdam, J. R. (1968). Mirror self-image reactions before age two. *Developmental Psychobiology*, 5, 297-305.
- Baumrind, D. (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In A. D. pick (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7,

- 3-46.
- Fontaine, A. M. (1996). *L'enfant et son image*. Paris : Nathan.
- Freud, S. (1962). *Three contributions to the theory of sex*. New York : Basic Books.
- Gallup, G. G. Jr. (1968). Mirror-image sti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70, 782-793.
- Gallup, G. G. Jr. (1970). Chimpanzees : Self-recognition. *Science*, 167, 86-87.
- Gellerman, R. L. (1981).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the Vietnamese child in the second year of lif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
- James, W. (1983). The consciousness of self.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Johnson, D. B. (1983). Self-recognition in infant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6, 211-222.
- Kagan, J. (1981). *The second year*.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Kagan, J. (1991). The theoretical utility of constructs of self. *Development Review*, 11, 244-250.
- Lamborn, S. D., Mounts, N. S., Steinberg, L., & Dornbusch, S. M. (1991). Pattern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 1049-1065.
- Lewis, M. & Brooks-Gunn, J. (1979). *Social cognition and the acquisition of self*. New York : Plenum.
- Mead, G. H. (1970).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einberg, L., Dornbusch, S. M., & Brown, B. B. (1992). Ethnic differences in adolescence achievement : An ecological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7, 723-729.